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7. 29.(수) 12:00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

- ‘일본 구마모토현 규모 7.1 지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7.29.)
- 연속 강진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및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28일(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연속 강진(규모 7.1과 6.1)과 관련하여, 7월 29일(수)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대학교 등 지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지진의 발생 원인과 국내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내 지진·지진해일 대비 태세 ▲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국내 유감신고가 789건 접수되는 등 인접 국가의 지진 영향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가 지진재난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성단층 조사를 비롯해, 전력·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의 내진 성능 강화와 반복적인 대피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춰 정부도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대피장소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 내진율 100%(2025년 82.7%) 확보를 목표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비용보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1,36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 대피장소 680개소를 지정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대피장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하여 관리 상태를 정밀 확인했다.

지진·지진해일 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국민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지진안전 AI 영상공모전'을 개최하고,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교육과 지진 체험 및 대피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국내에 직접 피해는 없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내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진·지진해일 행동요령>

- ▶ (책상 밑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 ▶ (보호하고!) 방석,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 (버티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하게 버틴다.
- ▶ 흔들림이 멈추면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한다.
- ▶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언덕, 야산 등)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한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	책임자	과 장	정성은 (044-205-5190)
		담당자	서기관	박성규 (044-205-5194)





지진 발생 시 장소별 이렇게 행동하세요!



학교, 주택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백화점, 마트
계단·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엘리베이터 안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 이용
※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전철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



운전 중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후
열쇠를 꽂아 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



산, 바다
산에 있는 경우 산사태에 주의,
해안에 지진해일 특보 시
높은 곳으로 이동

지진해일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지진해일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알아두기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벗어나 멀리 높은 곳으로 대피**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
※ 건물 3층 이상 또는 해발고도 10m 이상인 곳



지진해일은 수 시간 동안 더 높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